

괜찮겠지 안심했다...음주운전 딱 걸렸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현장 가 보니

광주·전남 8명 적발...차 놔두고 도주하다 붙잡혀 면허정지
단속강화 불구 여전...26분 차이로 면허정지-취소 엇갈리기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0시 18분께. 운전자 A(47)씨는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첨단대교 방향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BMW차량을 급하게 세웠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A씨는 “큰길로 나와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감지기를 붙자 적색 불이 들어왔고,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0분 전이었다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광주시 북구에서는 강화된 단속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4일 밤 11시 52분께 A씨와 똑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99%로 단속된 B(51)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불과 26분이란 시간차를 두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엇갈린 것이다.

이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가 0.1%에서 0.08%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강화된 0.03% 범위에 포함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나왔다.

이날 새벽 0시 41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 IC 앞 음주단속 현장에선 운전자 C씨가 차

를 세우고 500m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친구와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최씨는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전인 24일만해도 훈방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화된 음주단속기준과 처벌기준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

서는 광주 도심 5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면허취소 3건과 면허정지 4건 등 총 7건을 단속했다. 이날 광주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 중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이 적용된 이들은 A씨 등 2명이었다. 전남경찰청도 22개 시·군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광주 중앙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운전한 40대 1명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총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처리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 김명환 광산경찰서 교통안전1팀장은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임방울대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소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지났는데?

그래도 음주운전 단속 걸린다

기준 강화로 숙취운전 유의해야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답은 “그렇다”다.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시고, 얼마가 지나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은 소주를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정됐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체중 60kg 기준)이 소주(19도) 한잔이나 맥주(5도) 한잔을 마

시고 1시간이 지나 취기가 오를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숙취운전은 더 유의해야 한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방법)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ml)을 마실 경우 7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로 단속기준을 넘는다.

통상 소주 1병과 생맥주(4.5%) 2000ml, 막걸리(6%) 1병, 양주(45%) 4잔, 와인(13%) 1병에 들어있는 알코올량은 비슷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시간당 0.015%씩 감소하므로 음주 후 2~3시간이 지나 술이 깎이는 느낌이 들어도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017년 보성 헬기 추락사고, 규정보다 긴 물주머니 원인

지난 2017년 산불진화헬기가 보성군 벌교읍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사고(광주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7면)의 원인이 규정보다 긴 화재 진화용 물주머니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항공기 사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6일 오후 4시35분께 민간업체 에어로피사 소속 헬기(HL9170)가 화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보성군 벌교읍 이착륙장에서 이륙했다. 헬기는 이륙 5분 뒤 상공 150~200m에서 꼬리 회전날개가 떨어진 채 10여 차례 회전을 하다 추락해 조종사 박모(63)씨가 숨지고 헬기가 파손됐다.

사고 헬기는 ‘헬기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규정보다 1m 이상 긴 물주머니를 사용하다 이 물주머니가 뒤로 퍼지면서 꼬리

회전날개를 때려 회전날개가 떨어졌으며, 조종 불능 상태를 맞은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사고 헬기 동체에 화물을 묶는 인양 고리부터 꼬리 회전날개까지 길이는 530cm로 측정됐는데 물주머니의 길이(612cm)와 추가 연결고리(13cm) 길이까지 합한 총 길이는 625cm에 달했다. 매뉴얼에는 물주머니 길이를 인양 고리부터 꼬리 회전날개까지의 길이보다 최소 6인치(15.2cm) 이상 짧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조사위는 “해당 헬기는 규정보다 긴 물주머니를 달고 산불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조종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철새와 같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조종간을 급격하게 조작을 하다 물주머니와 꼬리 회전날개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완도서 출하 앞둔 전복 절도

어민 6명 1억8000만원 피해
완도해경, 용의자 추적

완도에서 출하를 앞둔 전복 100여 상자 사라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완도해양경찰, 완도 어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2시께 완도군 약산면·신지면 일대 해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50)씨 등 어민 6명이 1억 8000만원 상당의 전복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도난 규모는 출하를 앞둔 3~5년생 전복 500마리가 든 상자(50kg) 120여개로, 어민당 3000만원 상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한 어민은 완도 약산면 넓고리 인

근 해안가에서 수상한 불빛을 보며 살펴본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4명이 상자에 든 전복을 승용차에 옮겨 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남성들은 소형선박을 이용, 야간에 해상 양식장에서 전복 상자를 훔친 뒤 상자에서 전복만 따로 떼는 기조 손질을 하고 있었으며, 어민들에게 범행을 듣기자 차량과 선박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들은 “해경에서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순찰 강화 등 절도사건을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 총괄 본부장

지적장에 여친 속여 932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교제하던 지적장애 여성의 돈을 가로채고 잠적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지적장애를 알고 있는 여자친구의 통장 계좌에서 수차례 돈을 꺼내 쓴 장모(26)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여자친구 A(26)씨의 체크카드 등을 통해 932만원을 인출해 훔쳐 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지난해 11월께 A씨와

교회에서 만나 사귀게 된 장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를 속여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인출한 현금을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 급여를 확인하다 현금 인출 사실을 알아챘고 장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4월 26일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 CC-TV분석을 통해 지난 6일 장씨를 검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왜 무시해!” 함께 사는 지인 흥기로 찢른 4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5일 함께 살고있는 지인을 흥기로 찢른 김모(46)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55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이모(49)씨의 목을 흥기로 찢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씨와 술을 마시다 페트병으로 이씨를 때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반말을 했다는 이유

로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흥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인 김씨는 9개월 전부터 이씨의 집에 들어와 살며 상습 폭행을 했고,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평소 알코올을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심리·정신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채 시달리던 20대, 선배 집서 2200만원 든 금고 훔쳐



○...사채에 시달리던 20대가 고향 선배의 집에서 현금 수천만원이 든 금고를 들고 달아났다가 결국 절창 행.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초 모(23)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박모(26)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대부업을 하는 박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현금 2200만원이 든 소형금고를 훔쳐 거주지인 경북 대구시로 달아났다는 것.

○...경찰 수사팀이 좁혀오자 지난 20일 지수환 최씨는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훔친 현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ACS) 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북·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사업에 예산공여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력함에 공동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주 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